紀行文

이스라엘民族과 예루살렘

韓國電力株式會社

發電部長 李 東 馥

I. 奇 蹟

20世紀 後半의 대견한 일로서 흔히 Wirtschaft-wunder 一名 "Rhein江의 奇蹟"이라고 불리우는 第2次大戰의 敗戰國 獨逸의 經濟復興을 들고 있다. 또한 이것은 많은 後進國의 渴望의 的이 되어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獨逸은 完全히 無에서 出發한 것은 아니다. 軍需工業을 包含한 重工業의 被害는 莫甚하였지만 그래도 全體 工業力의 約 30% 程度는 남아 있었고 工業 以外의 産業 即 鑛山, 農業 等은 그 施設의 相當한 部分이 保存되어 있었다. 獨逸民族 自體는 Poland에 編入된 East Prussia, Silesia 地方의 居住民이 現在의 西獨 또는 東獨으로 强制撤去를 當한 以外에는 分斷된 現 國土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特히 美蘇의 冷戰이 벌어짐에 따라 Marshall Plan에 依한 莫大한 援助를 받아 復興할 絶好의 機會가 주어져 있었고 軍備禁止를 當함으로써 오히려 復興에 全力을 기우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勿論 復舊될 때까지의 獨逸民族의 苦痛과 피나는 努力을 過少評價하려는 것은 決코 아니다.

이와는 別途로 不毛의 땅 Palestine地區에 2,000年만에 世界各處에 흩어져 살던 猶太人 避難民을 糾合하여 아랍人 現住民의 頑强한 抵抗을 무릅쓰고 나라를 세워 國民所得이 1,000弗 가까운 福祉國家를 建設하고 人口와 物量에 있어서 數十倍가 넘는 아랍聯合國을 相對로 하여 獨立戰爭, 스웨즈紛爭, 6日戰爭 等 3次에 걸친 戰爭에서 世界戰史上 드물게 보는 戰果를 올린 이스라엘의 그 民族과 그 나라와 그 歷史는 나에게는 眞實로 奇蹟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 程度로 놀랍고 눈부신 바가 있었다.

나는 昨年 10月에 이스라엘政府의 招請을 받아 當社의 課長 2名과 함께 그 나라를 몸소 訪問하기 前까지는 이나라에 對하여 極히 淺薄한 知識 밖에 없었으며 率直히 말해서 別로 神通한 나라로 보지 않았던 것만은 事實이다. 그것은 歷史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우리와는 關係가 稀薄하였으며 大部分의 우리 國民 뿐만 아니라 世界의 一般的인 趨勢가 2次大戰까지의 anti-semitism的인 思考方式 때문에 猶太人에 對하여 옳바른 이미지를 가지기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實地로 보고 猶太人들과 알게 됨으로써 참으로 놀라운 事實을 發見하게 되었다. 于先 世界史上 한 民族이 他民族에 依하여 2,000年間이나 征服을 當하고도 한 民族으로서의 同一性을 그대로 現在까지 維持하여 온 民族은 猶太人 以外는 없다는 事實이다. 그것이 얼마나 긴 歲月인가는 우리나라의 歷史에서도 2,500年前에는 三國時代가 아직 始作되지 안았을 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짐작이 갈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을 征服하고 그 民族과 國土를 蹂躙抹殺한 로마帝國은 現在 古蹟만이 남아 있을 뿐 한 民族으로서나 또는 國家로서의 그 形態조차 發見할 수 없지 않는가? 現代文明의 發祥地인 英國, 獨逸, 프랑스 等은 그 當時 하나의 國家나 民族으로서의 形態는 全혀 없었으며 이곳 저곳에 部族的으로 集團을 이루고 살았으니 지금의

New Guinea나 아프리카의 土人과 비슷한 原始狀態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3,000年의 긴 歷史에서 數 많은 外勢의 侵犯을 當하였으나 아직 그 民族은 그대로 있지 않는가? 라는 反問이 있을 수 있지만 中國의 國土와 人口는 古代의 이스라엘과는 比較도 안될 程度로 尨大하였으며 侵犯한 外部의 小數民族이 거꾸로 이 큰 中國이란 도가니 속에 吸收되어버린 例가 許多하였다. 따라서 中國은 政治的인 征服을 當하였다고는 할지라도 그 物理的인 크기로 因하여 民族主體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記錄上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實際的인 歷史는 中國과 비슷하게 3,000年이 넘는 아득한 옛날에 形成된 나라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大陸의 交叉點인 現 Palestine에 位置하였던 적은 나라였으므로 西紀前 1世紀까지 强大國에 依한 數次의 侵略과 이 侵略으로부터의 解放 等을 數차례 交替하면서 내려오다가 마침내 當時의 莫强한 로마의 統治下에 놓이게 되었다. 紀元 66年에 猶太人들은 로마의 壓政에 抗拒하여 一齊히 蜂起하여 Palestine 地區에 駐屯하고 있던 로마軍隊를 全滅시키고 이때 一時的인 獨立을 爭取하였다. 우리나라의 京畿道만한 小國이 全盛期에 있던 大로마帝國에 挑戰하였으니 로마 本國은 곧 Titus將軍 (後에 로마皇帝가 되었음) 麾下의 3個 精銳軍團을 派遣하여 約 3年間의 熾烈한 戰鬪 끝에 마침내 猶太民族을 거의 虐殺하고 小數는 奴隸로서 로마에 끌고가고 나머지는 外國으로 逃避하였으며 戰爭으로 荒廢해버린 Palestine에는 周邊에 살던 아랍族이 大擧 移動하여 居住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때 地球上에서 實質的으로 抹殺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부터 逃避하여 살아 남은 小數의 猶太人과 奴隸로 끌려간 猶太人의 後孫들의 기나긴 迫害와 放浪의 生活이 始作된 것이다. 이것으로써 이 民族은 歷史의 忘却 속에 永遠히 사라져 버리고 그 形態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 歷史的인 通例이다.

그러나 그토록 긴 歲月과 그토록 甚한 迫害 속에서도 猶太人이란 同一性을 綿綿히 이어 내려왔고 2,000年 後의 지금에 이르러 아득한 옛날에 잃어버린 그 땅, 그 宗敎, 그 言語를 다시 되찾고 獨立國을 세운 이 不死鳥 같은 이스라엘民族의 힘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 原因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인가? 再三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猶太敎라는 民族主義的인 宗敎의 힘일까? 그러나 人類史를 보면 어떤 宗敎와 그 發祥民族이 똑같이 살아 남아 있지 않는 것이 通例이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一般的인 槪念上의 宗敎의 힘만도 아닌가 보다. 프랑스의 實存主義 哲學者 J. P. Sartre는 그의 著書 「猶太人」에서 그 不滅性은 猶太人 自身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猶太人을 迫害, 虐待, 隔離한 中世紀의 基督敎國家 때문에 오히려 그 特殊性이 保存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神通한 解答은 아니다. 으레 被征服民族은 迫害와 虐待를 當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時日의 흐름에 따라 滅亡하든가 同化되어 버리는 것이 原則인 것이다. 아마 이 猶太人의 不滅性에 對하여 앞으로도 當分間 많은 學說과 論爭이 繼續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Tel Aviv에 있는 아랍人 經營의 食堂에서 같이 저녁을 들면서 이야기한 猶太人 婦人의 말이 나에게는 퍽 印象的이었다. 即 "우리는 여호와神의 選民이다. 이 選民意識만이 그 긴 歲月의 許多한 困難을 이겨내게 하였고 他民族의 迫害에서도 猶太人의 同一性을 지켜왔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神의 約束대로 언젠가는 Jerusalem에 돌아갈 수 있다 하는 信念 밑에 살아 왔다. Jerusalem은 그間의 이스라엘民族의 希望이었으며 마음의 등불이었으며 2,000年間 滅亡에서 이겨내게한 生命體이기도 하다. ....." 아마 이것이 唯一한 正答인지도 모른다.

II. Jerusalem

이와 같이 수수께끼에 가득찬 머리로 Jerusalem을 찾았다. Tel Aviv에서 Jeff 氏가 運轉하는 cadillac에 몸을 싣고 全速力으로 달린다. Jeff氏는 이 나라의 獨立戰爭(1948) 當時 conveyer를 몰고 바로 이 길을 여러번 往來하면서 아랍軍과 싸운 經歷이 있어서 길가에 있는 바위와 나무 하나하나에 얽힌 에피소오드를 한 손으로 연상 담배를 피우고 또 한 손으로는 연상 제스츄어를 써 가면서 핸들에는 거의 손댈 틈도 없이 熱辯을 吐하여 說明한다. 이와 같이 運轉을 잘하는 사람을 나는 일찌기 본 적이 없다. 그는 拳銃의 名射手라고도 한다.

Jerusalem은 1948年 이스라엘이 獨立할 때 現在의 東西 Berlin과 같이 요르단側과 이스라엘側으로 分離되었던 것이 이번의 戰爭으로 完全히 이스라엘의 手中에 들어 왔고 現在 全都市가 이스라엘의

行政下에 있다. 서울보다 훨씬 적은 小都市이지만 3,000年前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歷史가 濃縮되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行政的으로는 이스라엘의 首都, 宗教的으로는 猶太教와 基督教의 聖都이며 아울러 Islam 教의 第3聖都인 이 都市는 神에 向한 人類의 끊임없는 憧憬과 情熱을 나타내는 3大宗教의 中心地이다. 또한 이 都市는 이미 사라진 먼 옛날의 nostalgia만을 풍기는 古蹟만 그득히 남아 있는 로마와 같은 都市가 아니라 繼續 歷史의 흐름 속에서 古代와 現代가 같이 躍動하는 都市이다.

아득한 옛날 예수·그리스도가 걸어다닌 그 골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現在도 아랍人들이 그 골목에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도 가지 各色으로 그림이나 映畵에서 본 古代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正統派 猶太人과 아랍老人들이 많히 눈에 띄었다. 그것은 마치 옛 時代의 映畵撮影을 爲하여 設置된 巨大한 撮影所 셑內에 들어온 것 같았다. 他都市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情景이다. 有名한 Jerusalem城이 있으며 城內가 舊都市이고 城外가 新都市이다. Hebrew大學, Knesset, Shrine of the Book 等 超現代式 디자인으로 된 有名한 建物들이 櫛比하게 있는 곳은 勿論 新都市인 城外이다. 이 Jerusalem城은 다른 나라의 城과는 由來가 다르다. 約 3,000年前 David 란 猶太人王이 城과 神殿을 처음으로 지었고 그 後 有名한 賢王 Solomon이 增築 擴張하였던 것이 約 2,500年前에 侵入한 Babylonia軍에 依하여 神殿과 城이 破壞되었다가 2,000年前에 Herod王이 다시 再建, 西紀 66年 로마軍에 依하여 이 神殿과 城이 또다시 破壞, 그 後 로마가 다시 修理 復舊하였다. 紀元 400年에 로마가 滅亡함으로써 아랍 帝國의 Moor 占領下에 들어 간 後 이 狀態가 西紀 1100年까지 繼續되었으나 다시 有名한 十字軍이 占領하여 城을 改築, 西紀 1300年에 Ottoman Turk에 依하여 征服, 大大的인 築城工事를 한 것이 現在의 Jerusalem 城인 것이다. 따라서 이 城의 構造는 限없이 複雜하며 城 밑을 파내면 옛날의 城터가 나타나고 그 밑을 더 파보면 그보다 더 옛날에 세운 城터가 나타나는 等 時代와 歷史와 現實이 上下, 左右 四方으로 뒤범벅이 된 것이 이 城인 것이다. 猶太人의 始祖인 Abraham 이 여호와의 啓示에 따라 그의 아들인 Issac 을 祭物로 바칠뻔 했다는 岩盤이 城의 北쪽에 있는데 이것을 Jubesite라 하여 猶太人들은 聖都市에서도 地上의 聖所로 삼고 있으며 Moor 帝國의 아랍人들이 侵入하여 Mohammed가 바로 이 곳에서 昇天하였다 하여 그 場所에 有名한 Dome of the Rock란 지붕이 全部 金으로 씨워진 mosque를 建立, 지금도 그 燦爛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옆에는 또 有名한 「痛哭의 壁」(wailing wall)이 있다. Solomon王 때의 神殿의 一部로서 失鄕한 猶太人들이 一生에 한번 이 城을 반드시 찾아와서 猶太民族의 全盛期였던 Solomon의 榮華를 追慕하면서 이미 잃어버린 祖國을 爲하여 痛哭하는 場所인 것이다. 이 wailing wall이 獨立戰爭의 結果 요르단側에 屬하게 됨으로써 約 20年間 猶太人의 接近이 不可能하였으나 6日戰爭의 結果 다시 이스라엘의 手中에 들어왔던 것이며 그 一帶에 密集하였던 아랍人의 板子집을 말끔히 撤去한 後 聖域化하였다.

現在도 많은 猶太人 男女老少들이 옛날부터의 祖上의 慣習에 따라 이 壁앞에 서서 痛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痛哭은 나라없는 슬픔에 가슴을 에이는 痛哭이 아니라 數千年만에 다시 찾은 獨立國家의 國民으로서 希望에 가득찬 기쁨에 넘친 痛哭일 것이다.

긴 人類歷史의 搖動 속에서 Jerusalem 만큼 많은 影響을 받고 또 影響을 미친 都市도 드물 것이다. 現在도 이 都市는 人類의 苦悶과 複雜性과 歷史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III. 精神力

Jerusalem을 나오면서 나는 3,000年間의 긴 歷史 속에서 헤메이다가 나온 사람 모양, 또는 요즘의 TV drama에 나오는 time machine 의 迷宮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 모양, 머리가 複雜해졌다. 이스라엘民族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간 사람이 수수께끼에 몰몰 말리어 나온 것이다. 自動車의 라디오는 오늘도 요르단接境에서 兩軍의 衝突事件이 있었음을 傳하고 있었다. 國境地帶로부터 이스라엘軍人을 실은 軍用車가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오늘 銃擊戰에서 싸운 軍人들인지도 모른다.

Oh Jerusalem! If I forget thee, May I forget my right hand!

舊約의 詩篇에 나오는 句節이다. 自己의 手足을 잃어버릴지라도 決코 Jerusalem을 잊을 수 없다는 이스라엘民族의 哀切한 祖國에 對한 鄕愁와 愛國

〈P. 55에 繼續〉